

'정책 · 혁신정당' 선언

민주 전북도당 제1차 상무위원회

혁신위 · K-뉴딜위원회 설치 의결

혁신위원장에 윤준병 의원 임명

안호영 의원은 K-뉴딜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4일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제1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전북도당을 정책정당, 혁신정당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이 전북도의 정책을 견인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해 혁신정당으로 거듭나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다"며 "정책정당, 혁신정당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시작으로 오는 21일 '국

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TF'의 '국가균형발전과 전북발전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어 오는 25일 K-뉴딜위원회 발족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북도당의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이후 정책정당, 혁신정당이 되기 위해 많은 토론회를 비롯한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이어진 안전처리에서 혁신위원회와

K-뉴딜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혁신위원장에 윤준병 국회의원, K-뉴딜위원장에 안호영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윤준병 혁신위원장은 "활발한 활동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면서 "당원이 체감하고 도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정책정당을 꼭 만들어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상무위원 A씨는 "김성주 도당위원장의 전북도당이 많은 변화와 혁신이 있을 걸로 기대된다"며 "더불어 당원과 도민들께 한 약속을 꼭 실천해야 한다"고 희망과 바람을 내비쳤다.

향후 원팀 전북도당, 혁신도당, 정책도당으로 나아가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행보가 전북도민들과 당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농업용 로봇 개발 · 보급 확산

민주 이원택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4일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농가 수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의 감소로 농업현장에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와 함께 농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용 로봇에 관여하는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중 첨단 농업기계화 추진사업의 하나로 포함돼 있어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농업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해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촌지역은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면서 생산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지역의 경제와 생활 여건이 향상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확산 보급은 우리 농업의 미래와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반이다"고 밝히며 "농가 소득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계화와 디지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4일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제7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전북도

교육청 추경 심사 마무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14일 2020년 전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전북도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 조정을 했다.

먼저 도 교육청 정책공보관 심사에서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도교육청 예산심사시 제출된 사업설명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등의 소명이 필요할 때는 적기에 제출할 것과 사업설명서를 신중히 작성할 것을 지적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스콜론 자동인식장치 운영비' 집행이 늦은 사유와 시범학교 지정현황 및 비론 설치 후 기대효과, 오송초 설치 후 기대효과 등을 묻고 시범사업 이후 확대를 당부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스콜론 자동인식장치'인 비콘이 가방에만 부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아동이 등,하교 외 가방없이 다니는 경우 등의 상황 등도 점검해 시범사업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 꼼꼼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교육국 심사에선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교원직무연수로 통일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성교육, 인권교육 등 다른 프로그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위기로 현장 연수보다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인성건강과 체육시설 학교시설사업비 감액 사유와 설계공모비가 감액된 이유를 자료로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돌봄프로그램 운영에 19억원을 삭감하는 이유를 묻고 순회교사를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기본생계가 어려워져 원격수업등을 진행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과 꾸러미 사업 등으로 진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교육청 차원 통일된 예산 편성 기준 필요”

최영규 도의원,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 지적

전북도의회 최영규(더불어민주당, 익산4) 의원은 지난 11일 전북도교육청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한 정병익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추경 심의과정에서 해외연수비, 현장 체험학습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교육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제시했지만, 1차 추경에서 일부만 삭감했고 이번 추경에 와서야 거의 삭감했으며 결국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현장 체험학습비 110억 중 70억을 감액하고 남겨놓은 40억원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며 “변발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경제부지사 도입 지역경제 선순환 절실”

조동용 도의원 “전북경제 회생에 모든 행정력 동원해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 19로 힘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이 민생중심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숭고 절의를 통해 예산을 꼼꼼히 챙겼다.

조 의원은 “경북, 강원도 등에서 시행중인 경제부지사 제도를 도입해 전북도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선순환 시킬 수

있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하면서 “현재 코로나 19, 군산조선소·GM대우폐쇄, 8월 폭우피해 등 경제위기에 빠진 전북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근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하면서 군산 국가산단은 한 가지 사례일 뿐이며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산업단지 휴폐업 사업장의 불법폐기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계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고질적 악취문제 해결부터 감염병 예방까지

민주 한병도 의원, 총선공약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14일 21대 총선 입법 공약이었던 익산의 악취,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에는 악취의 사전적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 설치로 상시 측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담겨있다.

우선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악취방지 종합시책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

에 대해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악취 민원의 정도 및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횟수 등을 고려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필요한 일정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의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해 상시 측정한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담아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 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경비의 1/2 이상을 지원하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은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악화된 미세먼지 문제로 지역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21대 국회에서 ‘익산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익산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국 시도지사들 “온누리상품권

미등록가맹점 한시적 환전해야”

공공의료기관 예타 면제도 건의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지난 12일 대전에서 ‘전국시도의회지방자치회 2020년도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장단은 정부에 온누리상품권 미등록가맹점에 대한 한시적 환전 허용을 건의했다.

송 의장은 이날 채택한 ‘온누리상품권 미등록가맹점 상품권 환전의 한시적 허용 건의’와 관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지원됐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맹점이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있다”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지역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라도 합법적 경로를 통한 환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장단은 공공의료기관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문도 채택했다.

공공의료기관은 지역사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필수기관이지만 수익구조가 취약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장단은 이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지방자치회회는 전북지역 수해복구에 써달라며 송 의장에게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의정 소식



전주시의회 행정위

도서관 · 김치가공장 방문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은영 의원)가 14일 전주시 덕진구 장동 일원에 추진되는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 및 덕진구 도도동 김치가공 유통시설 조성 예정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 점검은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상정될 안전심사를 위해 관계부서의 보고와 토론 후 현장 2곳을 찾아 조성 예정지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세밀히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은 지역 도서관의 허브이자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타 시군과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자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김치가공유통시설은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지적한 의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적극 반영해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의회 임시회 개최

김영태 시의원 “특별재난지 선포

지원액 · 실제 피해액 차이 커”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2021년도 신규 사업보고,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 남원시장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진강변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전평기 의원, 부위원장에 김정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양희재 의장은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서 어렵고 소외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헌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집행부에 대해 “집중호우 수해민들이 입은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고 피해보상을 실시해 안정적인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영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지원액과 실제 피해액이 과다하여 실제 수재민들이 느끼는 피해액은 3,000여원에 달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도 주택침수의 경우 세대당 200만원 밖에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시 차원에서 200만원을 추가 보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951년 준공된 구 금곡교는 현재의 하천관리계획 기준에도 맞지 않아 이번 수해에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며 철거를 강력히 주장했다.

/남원=김기두 기자